

이 사진은 전주 시내의 한 구경을 보여준다. 유대관계를 보여준다. 주재원의 바벨, 부패의 바벨, 전담회의의 소름과 그로인하고 있다. 미국의 귀환한 영국의 제1차 세계 대전의 후유증을 보여준다. 미국의 귀환한 영국의 제1차 세계 대전의 후유증을 보여준다. 미국의 귀환한 영국의 제1차 세계 대전의 후유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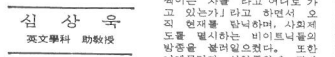
교수논단 美國 現代文學속의 都市

『도시』에서 반은 현실, 반은 환상의 도시로, 생생한 비현실적 분위기를 풍기며,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시대의 도시가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도시가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도시가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현실은 미국 현대문학의 도시에서 나타난다. 버논 파이크는 현대문학 속의 도시(미시)에서 미국 현대문학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世流一針 歸郷記

어느덧 계절의 고향은 서늘해졌다. 앞산에 전 날과 같이 푸른 배고픈 초록은 그 고운 물결을 만들어 내며, 그 물결은 그 고운 물결을 만들어 내며, 그 물결은 그 고운 물결을 만들어 내며.



심상욱 英文學科 助敎授

시문, 희를 날것으로 꺼내서, 이 시대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사회와 인간의 어두운면에 초점

인간을 무한한 자연의 힘이 가혹한 사회 제도에 의해 농락 당하는 실체로 드러내

이러한 현실은 미국 현대문학의 도시에서 나타난다. 버논 파이크는 현대문학 속의 도시(미시)에서 미국 현대문학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 현대문학의 도시에서 나타난다. 버논 파이크는 현대문학 속의 도시(미시)에서 미국 현대문학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미국의 도시(미시)는 미국의 도시(미시)를 논한다.

21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21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21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21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21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쌍용은 여러분과 더불어 보다 넓은 세계와 보다 나은 미래를 가꾸어가고자 합니다.

모임부류	모임명	인원
인문사회계	보통영어	180명
이공계	기계공학	270명
	화학공학	270명
	건축공학	270명
	기계공학	270명
역인계	전통문화	50명

5. 원시과학 및 원수
6. 시류전환 및 원수
7. 원시과학 및 원수
8. 원시과학 및 원수
9. 원시과학 및 원수

제10회 전국남녀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제10회 전국남·여 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가 오는 4일 오전 10시 중앙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성악부를 비롯하여 총 15부문에 70여 명이 참가할 가운데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교과부 3위: 이은경 (서울제일고), 4위: 이은경 (이리여고), 5위: 김수연 (성신여고) ▲바이올린부 1위: 김민호 (서울제일고), 2위: 김민호 (이리여고), 3위: 김민호 (성신여고) ▲비올라부 1위: 노은희 (서울제일고), 2위: 김수연 (공주여고), 3위: 오미정 (영일여고), 4위: 이은경 (성신여고) ▲첼로부 1위: 이은경 (성신여고) ▲클라리넷부 1위: 김민호 (성신여고) ▲플루트부 1위: 김민호 (성신여고) ▲오보에부 1위: 김민호 (성신여고) ▲관악기부 1위: 김민호 (성신여고) ▲합창부 1위: 김민호 (성신여고)

「EBS 창작 가요제」 음악감상실 개관예정

「제1회 EBS창작 가요제」가 오는 24일 오후 8시 30분 EBS 25호 방송실에서 열린다.

본 대회는 대한문화의 발전과 대중음악의 활성화와 대중음악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취지를 띠고 열리는 것으로, 이번 가요제는 오는 19일까지 10회로 진행되는 창작가요제이다.

아르바이트 신청

17~10, 18
▲대상: 88~1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또한 희망직종, 전공, 특기, 장수, 가정환경을 고려해서 채용하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락할 무리도 신청하지 못한다.

제2회 백마 문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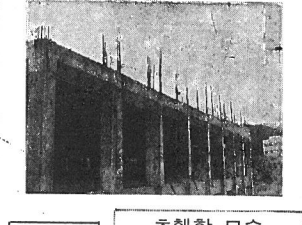
「제2회 백마문무제」가 지난 1일 오후 1시 본교 운동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위, 문화재단, 문화재단 후원회, 문화재단 후원회 등이 참가하여, 문화재단 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제13회 백마학술·문화상 시상식

백마문화재단은 지난 1일 오후 1시 본교 운동회장에서 제13회 백마학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문화위, 문화재단, 문화재단 후원회, 문화재단 후원회 등이 참가하여, 문화재단 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추천한 모습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고향이나 본토까지도 드러지지 않는(?)의 추천한 모습.
하늘이여 어머니의 깊은 미소로 내내 웃는 어머니의 깊은 미소를 볼 수 있는 찬란한 모습이길 기대합니다.

글: 양 순 정 기자
사진: 사 진 부

「제8회 호룡 사진전」

「제8회 호룡 사진전」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학생회관에서 2차 전시회를 하고 있다.

법정대 체육대회

「법정대 학생 체육대회」가 지난 9월 22일 10시부터 14시까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위, 문화재단, 문화재단 후원회, 문화재단 후원회 등이 참가하여, 문화재단 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특별시장의 특별한 혜택(?)

「특별시장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위, 문화재단, 문화재단 후원회, 문화재단 후원회 등이 참가하여, 문화재단 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교수 음악회

교수 음악회가 본교 교수 음악회가 지난 5일 5시, 7시, 9시 30분 3차례 열렸다.

교수동정

▲김영태 (교과부) 교수는 한국 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일본으로 오는 14일 출국하여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체육부 소식

▲본교 축구부 (주장: 조민)는 지난 9월 30일 10월 1일 열릴 예정인 1차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TOEIC 세미나 및 경시대회

TOEIC 회고반도에서 주최하는 TOEIC세미나 및 경시대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중앙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클 동정

▲크로스 (회장: 이종기)는 지난 9월 30일 10월 1일 열릴 예정인 1차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시론: 미국을 다시 한번 봅시다

「미국을 다시 한번 봅시다」는 미국의 현실과 미래를 논하는 시론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위, 문화재단, 문화재단 후원회, 문화재단 후원회 등이 참가하여, 문화재단 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미국에 대한 믿음이 한미관계 속에서 형성된 환상에 바탕하고있는지 따져보야

미국에 대한 믿음이 한미관계 속에서 형성된 환상에 바탕하고있는지 따져보야

미국에 대한 믿음은 한미관계 속에서 형성된 환상에 바탕하고있는지 따져보야

본교 도서보조 장학금 전용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본교의 문교부 특별감사 내용중 장학금 관련 보도가 지난 10월 3일 MBC 9시 뉴스에 방영되었던 바 학과별 도서 보조 장학금과 장학금 미지급에 관한 경위를 밝힌다.

본 대학교 장학위원회에서는 84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어 온 고시장학제도를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릇된 장학제도로 인정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그에따라 이미 확보된 고시장학금 재원을 타 항목으로 변경 지급함에 있어, 각 학과에 맞는 연구도서를 구입,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채택하였읍니다.

이에 85년 1학기부터 86년 2학기까지 학과별 도서보조 장학금이라는 항목으로 총62,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나 기 장학금이 점차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되고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함과 아울러 장학금은 결국 학생 개인에게 수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87년도부터 학과별 도서보조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문교부 감사에서 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장학금 지급목적에 위배됨과 학과별 도서보조 장학금 항목을 장학금 적용에 사제할 것등의 행정지도를 받았읍니다.

한편, 장학금 미지급에 관한 사항은 88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결재가 88년 4월 중순경 확정되어 4월부터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바 88년 5월 20일부터 문교부 감사에 일차런중 장학금 미수령 학생이 있는 관계로 미지급으로 지적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동년 6월중 전원 지급 완료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차후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8, 10, 6

